



보도 일시	2. 23.(수) 12:00	배포 일시	2022. 2. 23.(수) 10:00
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	책임자	과 장 김동익 (044-215-4710)
		담당자	사무관 박창규 (ckpark0916@korea.kr)

2021년말 대외채권·채무 동향

- ◇ '21년말 대외채권은 1조 779억불로 전년말(1조 278억불) 대비 502억불 증가
- ◇ '21년말 대외채무는 6,285억불로 전년말(5,449억불) 대비 836억불 증가
 - 外人 채권투자 등 장기외채 위주 증가(+767억불)
 -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긍정적 시각이 지속되며 外人 채권 투자 역대 최대 유입
 - 12년만에 이루어진 IMF SDR 배분은 특이요인으로 작용
 - 단기외채 증가폭은 '16년 이후 최저 수준(+69억불)
 -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및 교역 개선에 따라 민간 무역신용 증가
- ◇ 외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외채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유지
 - 단기외채/총외채(26.4%) 비중은 '15년 이후 최저 수준, 단기외채/외환 보유액 비율(35.9%)도 전년대비 감소

□ (대외채권) 2021년말 대외채권은 1조 779억불로 전년말(1조 278억불) 대비 502억불 증가

-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증가(+200억불), 기타부문(비은행권, 민간기업 등)의 무역신용 증가(+103억불) 및 채무상품 직접투자(+82억불) 확대가 주된 요인

□ (대외채무) 2021년말 대외채무는 6,285억불로 전년말(5,449억불) 대비 836억불 증가

- (만기별) 단기외채(만기 1년 이하)는 1,662억불로 전년말 대비 69억불 증가하였고, 장기외채(만기 1년 초과)는 4,622억불로 767억불 증가

○ (부문별) 정부(+229억불), 중앙은행(+197억불), 은행권(+191억불), 기타부문(비은행권, 민간기업 등, +219억불) 모두 증가

-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가, 중앙은행은 IMF SDR 배분이 주된 증가요인이며, 은행권 및 기타부문은 외화채권 발행을 중심으로 증가

□ (순대외채권) 2021년말 순대외채권(대외채권-대외채무)은 4,494억불로 전년말 대비 감소(△334억불)

□ (평가) 외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장기외채 위주 증가로 외채건전성은 양호

○ 작년 외채 증가는 외국인 원화채권 투자, 국내기관의 외화채권 발행* 등 장기외채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

* '21년 비거주자 국내채권(원화+외화) 보유잔액 +556억불 증가(총외채 증가의 67%)

- 外人 원화채권 투자자금의 역대 최대 유입('21년 +64.5조원)은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이 지속된데 따른 것으로, 원화표시 외채비중 확대 등 외채구조 개선에도 기여

- 국내기관의 외화채권 발행 확대는 글로벌 저금리 외에, 대외신인도 개선에 따른 한국물 해외수요 확대도 중요한 원인

- 12년만에 이루어진 IMF SDR 배분(+114억불)은 특이요인으로 작용

* 특이요인 제외시 총외채 증가폭 전년대비 감소(+742 → +721억불)

○ 단기외채 증가폭(+69억불)은 '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

* 단기외채 전년대비 증감(억불): ('16)+4.5 ('17)+112 ('18)+96 ('19)+99 ('20)+239 ('21)+69

- 과거(은행 단기차입 위주)와 달리 민간 무역신용 확대가 주요 증가 원인이며, 이는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및 교역개선의 결과

* 기타부문 단기 무역신용 증감(억불): ('18)+7 ('19)△15 ('20)+1 ('21)+71

○ 외채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 유지

-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26.4%, △2.8%p)은 연말 기준으로 '15년 이후 최저 수준
- 단기외채/외환보유액 비율(35.9%, △0.1%p)도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, 과거 평균 및 여타 신흥국 대비 낮은 수준

* 과거 평균('10~'20년)/현재(%) : (단기외채비중)30.7/26.4 (단기외채비율)36.4/35.9

* 단기외채비율('21.3/4, %): (터키)104 (아르헨)99 (말련)81 (남아공)51 (韓)35

- (향후 대응) 우크라이나 긴장 확대, 美 통화긴축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, 자금 유출입 흐름과 대외채무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외건전성 관리 노력 지속

< 대외채무 현황 >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전년비
총 외채(억불)	3,821	4,120	4,412	4,707	5,449	6,285	+836
단기외채(억불)	1,048	1,160	1,256	1,355	1,593	1,662	+69
장기외채(억불)	2,774	2,961	3,156	3,353	3,856	4,622	+767
단기외채/총외채(%)	27.4	28.1	28.5	28.8	29.2	26.4	△2.8%p
단기외채/보유액(%)	28.2	29.8	31.1	33.1	36.0	35.9	△0.1%p
대외채권(억불)	7,814	8,774	9,188	9,572	10,278	10,779	+502
순대외채권(억불)	3,993	4,654	4,777	4,864	4,828	4,494	△334

※ 통계 출처: 2021년 국제투자대조표(잠정) (한국은행, '22.2.23.)